‘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에 한국화 김서영 영예

‘제41회 무등미술대전’ 입상자 선정 발표

10개 부문 출품작 1944점 접수 대상 8점 등 1096점 입상

입상작展 시상식과 함께 17~21일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침체화된 한국화단과 지역 화단을 이끌어갈 신예 작가를 발굴, 육성하기 위한 ‘무등미술대전’ 입상자가 가려졌다.

사단법인 광주전남발전협의회(회장 김중채)는 전국 각 지역 고른 연령층에서 1944점이 출품된 ‘제41회 무등미술대전’ 심사를 지난 3일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진행한 결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대상과 우수상, 특선, 입선 등 10개 부문 입상자가 가려졌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처럼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열린 이번 미술대전은 제40회 대전에 총 1815점이 출품된데 비해 올해는 그보다 129편이 늘어난 가운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하반기에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열리기 때문에 상반기로 당겨 실시되면서 ‘작품 접수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이를 불식시키고 소폭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조각과 사진 등이 줄어든 반면 서양화와 한국화 등은 소폭 늘어났다. 공예 부문 섬유 파트가 33편이, 멋글씨가 27편이, 한국화와 수채화가 25편이 각각 다소 증가했다.

서양화 대상 이주영 作 ‘작업’

문화부 장관상 한국화 김서영 作 ‘오늘도 영원히 내일에게’

수채화 대상 채호산 作 ‘섬마을’

최대 공모분야는 사진이 513점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고, 그 뒤를 이어 서예가 307점, 멋글씨가 244점, 한국화가 237점 등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미술대전에는 한국화를 비롯해 문인화, 서양화, 수채화, 판화, 조각, 공예(금속·도자·목칠·섬유한지), 서예(한글·한문·현대서예), 사진 등 10개 분야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1점을 비롯해 대상 8점, 우수상 26점, 특선 364점, 입선 697점 등 총 1096점이 입상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올해 수상자는 한국화 장르의 김서영씨(25·대전)의 ‘오늘도 영원히 내일에게’가 영예를 안았다. 이어 대상작으로는 문인화에 문연봉씨(71·광주)의 ‘만다라’가, 서양화에 이주영씨(51·전북 순창)의 ‘작업’이, 수채화에 채호산씨(52·전남 목포)의 ‘섬마을’이, 조각에 배서현씨(22·대전)의 ‘여름을 회상하며’가, 공예 부문 도자에 이준범씨(47·경기 여주)의 ‘옻칠 금박 진사항아리’가 각각 선정됐다.

이밖에 서예 부문 한문에 강용우씨(48·전남 목포)의 ‘이백 선생시’가, 멋글씨에 이재권씨(62·서울)의 ‘독도’가, 사진에 정나겸씨(경북 경산)의 ‘사람들’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1명을 포함해 대상 수상자 8명 중 광주는 지난해 3명에서 1명으로 줄었다.

판화 부문은 올해 대상을 배출하지 못했다. 무등미술대전은 다른 미술대전과 달리 최우수상을 뽑지 않고 있다.

우수상에는 한국화에 ‘희망가’를 출품한 노승희씨(83), 한국화에 ‘잠시만요’를 출품한 김소현씨(25), 조각에 ‘부식되는 심야’를 출품한 이정아씨(24) 등이 뽑혔다.

또 한국화(노승희·김소현)와 문인화(최부이·손영경), 서양화(김은영·서효림), 수채화(김경옥·권혜경), 판화(이은미·김상진) 부문은 각 2명, 공예 부문(홍영신·배상만·최성현·차준용·이정희)은 5명이 우수상에 이름을 올렸다.

서양화에 ‘환희’를 출품한 김은영씨(48) 등 수상자 총 26명 중 8명이 광주 출신으로 밝혀졌다.

심사위원들은 혼신을 다해 준비한 작품들이 다양한 기법과 표현으로 제작된 것을 볼 수 있었고, 작품들마다 독자성과 창의성 등이 돋보였으며, 현대적인 경향을 확연히 보여줬다는 평이다.

심사위원장인 김남규씨(사진작가·제주)는 “전국 각지에서 골고루 출품된 작품들은 어느 한 점 빠짐없이 훌륭하다는 판단으로 인해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었다. 완성도 높은 작품 중에 회화성이 뛰어난 수작이 선정됐다. 치밀한 터치에 다양한 표현방법을 볼 수 있었다”면서 “심사 과정에서 서로 다른 이해와 과정이 있었으나 서로 논의해 합의점을 도출해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입상작에 대한 시상식은 개막식에 앞서 오는 17일 오후 2시 광주비엔날레 전시실에서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1명과 분야별 대상 8명에게는 각각 상금 500만원이 수여되며, 우수상 26명에게는 상금 각 100만원이 주어진다.

전시회는 17일부터 21일까지다. 개막식은 17일 오후 2시 30분.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제주항공 참사 ‘100일 특집 다큐’ 방영

KBS ‘작별하지 않는다’ 오늘 전국 방송

한석규 내레이션…애도와 연대 메시지

KBS광주방송총국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00일을 맞아 제작한 특집 다큐멘터리 ‘작별하지 않는다’(연출 조나영, 글·구성 최민임, 김도영)를 7일 밤 11시 35분 전국 방송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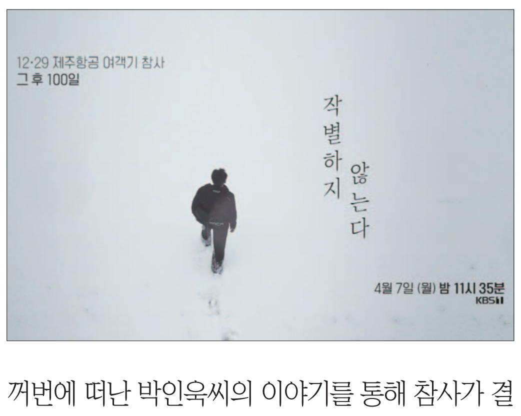
2024년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탑승객 중 179명이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항공 사고가 발생했다.

혼란스러운 국내 정치 이슈로 기억해야 할 참사는 빠르게 잊혀져 가고 있다.

이 다큐멘터리는 사고 당일부터 100째 되는 날까지 유가족을 밀착 취재해 담아냈다.

그동안 언론에 잘 알려지지 않은 유가족의 모습을 밀도 있게 전하며 비극을 이겨내기 위한 공감과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했다.

특히 방송은 참사로 딸과 아내를 잃은 김성철씨, 아들과 예비 며느리를 보낸 나명례씨, 서해훼리호와 세월호까지 수습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지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5명의 가족이 한꺼번에 떠난 박인욱씨의 이야기를 통해 참사가 결코 개인의 불행이 아닌 사회 공동체의 몫임을 알린다.



또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각심 상실이 반복되는 참사의 가장 큰 원인임을 다시 한번 되짚고, 슬픔을 함께 애도하고 극복했을 때 사회가 더 나은 세상으로 발 디딜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

방송 중 무안공항 쉘터(쉼터)에서 떠나지 못하는 유가족들의 명절 설 차림 장면은 공동체의 연대가 뜨거운 인류애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49재 씻김굿과 종이옷을 태우는 장면은 슬픔을 이겨내려는 인간의 성숙한 몸부림을 담아냈다.

특별히 배우 한석규가 내레이션을 맡아 준 대목이 주목할 만하다. 한석규는 자신의 목소리가 유가족에게 위로와 힘이 된다면 기꺼이 참여하겠다는 뜻을 피력했고, 연대가 왜 중요한지 몸소 실천으로 보여줬다.

더빙 작업 내내 눈시울을 붉히며 유가족들에게 공감하고 작업을 끝낸 후 먹먹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후문이다.

방송 제작진은 “이번 참사가 절대 잊히지 않고, 참사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다경 기자 alsqlsdl94@gwangnam.co.kr

광주대 평생교육원, 수채 일러스트반 회원전

11일까지 호심미술관 ‘빛을 담다’ 주제

광주대학교(총장 김동진) 평생교육원 수채 일러스트반은 지난 1일 개막, 오는 11일까지 교내 극기관 1층 호심미술관에서 ‘빛을 담다’를 주제로 한 제4회 회원전을 갖는다. 출품작은 평생교육원 회원 5명이 새로운 수채 기법으로 완성한 27점.

꽃 수채 일러스트는 자연의 꽃에 빛을 담아 찍은 사진을 보며 느낀 현상학적인 느낌을 수채로 표현한 장르다. 객관적 실체를 미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채색 과정에서 작가의 현재 자아가 그로 인해 변화됨을 심상적으로 탐구할 수 있다.

평생교육원 정현주 강사는 “많은 어려움이 산재한 삶 속에도 희망은 늘 빛과 함께 존재한다는 믿음으로 좀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붓과 함께하는 회원들의 전시회에 많은 관람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최준호 호심미술관장은 “매년 거듭되는 전시로 평생교육원 수채화 일러스트 성인학습자들의 작품이 상당한 경지에 올랐다”며 “평생학습을 통해 자발적으로 참여해 역량을 계발할 수 있도록 대학미술관이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다.

정중기 작 ‘새벽’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국민 납득 새 돌파구 마련…문예분야 관심 촉구

4·4 대통령 파면 문화예술계 반응

정찬일 민예총 이사장 “새 문예 시스템을”

박광구 미협회장 “모든 분야 발전을 도모”

김미승 작가회장 “제대로 나라 이끌어야”

박광구

이근모

김미승

정찬일

이상훈

고난영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다. 광주전남 문화예술계 인사들도 일반시민과 다름없이 파면을 환영했다. 이들 문화예술계 인사는 그동안 흐트러진 정국이 바로잡히고 국가 시스템이 하루빨리 바로 잡혀 모든 것이 정상화되기를 기원했다.

또 정치적 시스템 못지 않게 불황에 깊이 빠진 경제 회복, 의료 현장 혼선 극복, 내란 세력에 대한 처벌, 6월 실시될 대선 정국 관리 등 첩첩산중 쌓인 국가적 과제와 향후 정치적 일정을 무리없이 풀어가기를 희망했다.

광주미술협회와 광주문인협회, 광주전남작가회의, 광주민예총, 광주영화영상인연대 등 문화예술단체 수장들로부터 파면 이후 새롭게 전개될 대한민국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이들은 차기 정부가 문화예술계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를 정리, 소개한다.

먼저 정찬일 (사)광주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민예총) 이사장은 “윤석열이 파면됐다. 지난 4개월을 거리에서 보낸 민주시민들의 승리”라면서 “윤석열 정권은 ‘입틀막정권’으로 표현의 자유를 막았을뿐 아니라 예술을 사유화하고 문화예술관련 예산을 삭감해 예술가들의 생존권을 위협했으며 국민들의 문화예술향유권을 제한했다”고 비판했다.

정 이사장은 “새로운 정부에서는 새롭게 문화예술 지원 시스템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 또한, 예술가들의 자발성과 창의성을 적극 지원하고 예술가들이 스스로 주도할 수 있는 정책실행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 전했다.

광주미술협회 박광구 회장은 12·3 비상계엄 선언 이후 4개월만에 현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파면이 확정된 가운데 계엄 전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과 혼란한 국정을 수습하는 등 새로운 돌파구 마련을 촉구했다.

박 회장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렸던 국가적 위기 속에 파면이 확정됨에 따라 이제 민주주의도, 국민들의 일상도 제자리로 돌아가기를 바란다. 이 네달 동안 국가적 분열이 심각했는데 이제 한데 뭉쳐 다시 모든 분야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경제가 침체돼 어려운데 이것이 살아나야 문화예술계 역시 활력을 도모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과거에 보면 예술계만 지원해달라고 하는 성향이 있지만 경제가 죽어 있는데 ‘어떻게 예술계만 활력이 있을 수 있겠냐’며 궁극적으로 경제 살리기에 다같이 나서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문인협회 이근모 회장은 비상계엄 이후 양분된 사회를 통합시켜야 하는 숙제를 가장 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 회장은 “‘양분된 사회 통합에 대한 숙제를 슬기롭게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가야 한다. 대한민국이 하나가 돼 한 목소리로 ‘오! 대한민국’을 외칠 수 있도록 정서로서 국민통합을 꾀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면서 “문학인도 사회참여를 하는 태도는 좋다고 본다. 하지만 갈등을 조장하지 않는 선에서의 참여가 좋겠다. 특히 한마음으로 공유할 수 있는 참여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전남작가회의 김미승 회장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통해 우리 사회를 돌아보는 기회를 가질 것과 결속력의 중요성을 잊지 않았다.

김 회장은 “파면이 확정된 만큼 국민들은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고, 나라는 제대로 된 사람이 이끌고 나가야 한다. 그리고 작가들은 나라 걱정을 그만하고 자기 작품을 제대로 쓰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저도 그렇고, 작가들도 그렇고 비상계엄 전에는 자기 작품을 하는데 힘을 쏟아 왔지만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사회를 돌아봐야 하는 기회가 됐기를 희망한다”면서 “‘어떻게 글을 쓸 것인가’를 망라해 모든 것을 뼈저리게 느끼지 않았을까 싶다. 어려운 시대 상황 속 문학인들이 힘을 모으고 솔선수범해 결속력을 발현해 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이상훈 (사)광주영화영상인연대 이사장은 침체된 영화산업이 다시 활로를 되찾고 살아나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민주주의의 승리를 축하한다. 이제야 진정한 봄을 맞이했다”면서 “특히 그동안 삭감되거나 폐지된 지역 및 독립영화 관련 예산과 사업들이 다시 살아나 K 컬처의 기반이었던 한국영화계가 정상화되고 영화인들이 숨쉴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고난영 광주연극협회 회장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는 무겁고 답답한 마음이 들었는데 이제야 해소된 기분이다. 끝이 아니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시작”이라면서 “문화예술계 전체가 예산 삭감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텐데 침체된 문화예술계가 활력과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방안 마련에 함께 힘써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고선주·김다경기자 rainidea@gwangnam.co.kr